

갈등 빛은 여수 만흥지구 임대주택 조성 사업

권오봉 시장 “주민들 반대 땀 추진 어렵다”

민선 7기 1년 간담회서 밝혀 사업 추진 시기·범위 등 국토부·LH와 협의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여수시 만흥지구에 추진 중인 임대주택 조성사업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택지조성 반대 현수막.

여수시가 검은 모래로 유명한 여수 만흥 지구에 추진 중인 임대주택 조성사업의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권오봉 시장이 주민반대시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권 시장은 지난달 27일 시청에서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수의 주민이 반대하면 만흥지구 임대아파트 조성사업을 실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업 추진 시기와 범위 등을 국토부, LH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또 “만흥지구는 2013년 개발지구로 지정된 이후 민간사업자가 중도 포기하는 등 개발 진척이 없었던만큼 LH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안정성이 있고 여러 가지로 맞았다는 판단에 추진했는데 주민들의 뜻이 다르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정부의 임대주택은 중산층을 겨냥한 주거안정 대책으로 낙후된 주택이 아니다”며 “여수산단과 접근성이 좋아 산단 근로자와 젊은 층이 거주하면 인구 유입 효과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만흥지구는 중촌마을에 70세대 150여 명이 거주하며 평촌마을에는 180세대 300여 명이 살고 있다. 개발구역에 포함된 평촌·중촌마을 주민들은 반대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최근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전남도, 여수시, 여수시의회에 “만흥지구 민간임대주택 공급축진지구 지정 및 도

시기분계획변경에 대한 주민반대의견서’를 보냈다. 지난 달 26일에는 권시장을 만나 요구사항도 전달했다. 김홍수 반대위원회 위원장은 “권 시장이 다수의 주민이 반대하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공문으로 약속한 내용을 받기로 했다”며 “중촌·평촌 주민 대부분이 반대사를 명확히 한 만큼 공문이 오면 주중에 주민 총회를 열고 의견을 묻은 뒤 시에 결과를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수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도 꾸준히 커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여수시의회는 만흥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의원들의 의견서를 국토부와 LH, 전남도, 여수시 등에 보냈다. 임대아파트 개발사업 반대에 서명한 의원은 전체 26명 가운데 15명이 다.

여수시의회 의원들은 반대 의견서에서 “민간임대주택 건설은 여수시가 2013년부터 추진해 온 명품 해양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과도 배치된다”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졸속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들은 또 “여수시는 2016년 10월 전남도로로부터 검은 모래 해변 배후부지 관광휴양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승인받았다”며 “이를 무시하고 민간임대주택을 건립하려는 것은 도시기본계획과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여수시에 대해선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국토부에는 만흥지구 해양관광 휴양도시 개발사업을 위해 LH의 민간임대주택 사업 제안을 불허할 것을 요구했다. 여수시는 지난 5월 30일 LH와 만흥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7만4000㎡ 부지에 3578세대가 들어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축진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저탄소 생활 실천 전국대회’ 여수서 개최

현지실사에서 최종 선정 11월 중 박람회장서 열려

여수시가 ‘2019년 저탄소 생활 실천 전국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여수시에 따르면 저탄소 생활 실천 국민대회는 생활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중심으로 2008년부터 매년 열고 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다. 시는 행사 유치를 위해서 지난달 12일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환경부 주관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전국 3~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현지실사에서 최종 선정됐다.

저탄소 생활 실천 전국대회는 오는 11월 중 이틀간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국 네트워크 참여단체

대표를 비롯해 그린리더, 상담사(컨설턴트), 유관기관, 기업, 학생, 시민 등 1700여 명이 참석하게 된다.

여수시는 개최지 선정과 함께 국비 5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사업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등 총 1억 5000만 원이 저탄소 생활 실천 전국대회에 투입된다.

올해 행사는 개회식을 포함해 저탄소 생활 경연대회와 함께 다양한 체험·전시 홍보관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유치 선포식이 계획돼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저탄소 생활 실천 전국대회를 민들없이 준비해 2022년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범국민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롯데케미칼, 국가유공자 여수투어 지원



참석자들 “즐거워 시간 감사”

롯데케미칼(본부장 박현철)이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여수투어행사 지원에 본격 나섰다.

2일 롯데케미칼에 따르면 최근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전남동부지청에서 주관하고 롯데케미칼 사육대봉사단이 후원한 ‘문화가 있는 여수투어’ 행사를 여수보훈회관에서 개최했다. <사진>

이날 행사는 늦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남동부지청 재능기부 학생들과 사육대봉사단의 정성스런 안내·봉사 서비스로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국가유공자들은 이날 자선공연 현충탑을 찾아 참배한 후 여수지역을 둘러보며 아름다운 절경을 만끽했다. 특히 상식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으며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전남동부보훈지청 관계자는 “늘 외롭

게 계시던 분들이 이렇게 좋은 여수에 와서 구경도하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받으니 정말 즐거워 하겠다”며 “아름다운 봉사에 함께해 준 롯데케미칼 사육대봉사단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케미칼은 인간에 대한 신뢰, 자연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지역기업으로 지난 1976년 여수국가산단에 입주해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동안 사육대봉사단이 여수시와 연계한 희망하우스를 비롯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불우이웃돕기, 사회복지지원, 김장담그기, 사랑의 연탄배달, 빨간밥차 배식지원 등 활발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펼쳐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김포~여수 항공노선 감편 안된다”...여수상의 등 추가 증편 요청

여수상공회의소가 지난 1일 순천·광양상와 공동으로 대한항공 김포-여수 노선 감편 운항계획 철회와 노선 추가 증편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와 국회, 대한항공 등에 전달했다.

여수상의는 건의문에서 “최근 광양만권은 대규모 민간투자와 정부 지원사업이 줄어 있고 있고, 실제 여수-고흥 간 5개 연륙교 개통,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 순

천동아시아문화도시조성, 순천만 잡월드 건립, 광양어린이테마파크조성 등에 대응하는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며 “이 때문에 광역교통망 확충 방안인 김포-여수 간 운항 횟수에 증편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여수공항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서 여수-김포노선 1일 4회, 제주노선 1일 3회 운항중이며 지난해 여수공항 이용

객은 58만 9996명을 기록했다. 2016년 대비 약 17.2% 증가했다.

여수상의는 “이처럼 증가세를 기록 중인 항공 수요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이 오는 10월부터 김포-여수 노선을 1일 2회에서 1회로 감축할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여수·순천·광양상의는 유감을 표명한다”며 “동시에 광양만권 75만 지역민들의 교통편의와 관광수요 급증, 기업의 원활한

산업 활동 필요성 등을 근거로 대한항공의 감편 계획을 철회하고 항공수요에 맞춰 김포-여수 1편을 추가로 증편해 달라는 건의문을 주무장관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상의는 여수·순천·광양지역 3개 자치단체와 시의회, 상공회의소, 공항관련 기관·기업 등 17개 기관이 모인 광양만권공항활성화협의회(회장 박용하)를 통해 공항활성화를 위한 방안마련과 제안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해경 명예로운 정년퇴임식 갖고 직원 노고 치하

여수해경이 명예로운 정년퇴임식으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2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서장집무실에서 각 과장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로운 정년퇴임식을 가졌다. <사진>

이번 명예로운 퇴임식은 2019년 상반기 정년퇴임 해양경찰관 5명에 대한 그간의 노고를 위로함과 동시에 30여 년의 해양경찰 생활을 마감하는 앞길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퇴임식은 개식사를 시작으로 약력 소개

와 함께 포상, 기념패와 꽃다발 증정, 직원 환송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정영복(38년 근무) 경감에게는 육서근정훈장이, 문주상(29년 근무) 경위에게는 대통령 표창이 수여되는 영예가 주어졌다.

정영복 경감은 “지난 38년간 수많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 동료 선·후배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해양경찰 발전을 응원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장인식 여수해경서장은 “재직기간 동안



거친 파도와 맞서 국민안전과 해상치안 유지를 위해 헌신해주신 선배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남은 후배들도

두 한 마음으로 시민과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해양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A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1566-9988

돋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돋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극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옛.밝은광주안과